

한국에서 이 몸을 받았고, 더욱이 불교를 만날 수 있었던 인연에,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감사 드린다. 짙어가는 녹음사이로 햇살이 정겹다.

20세기 인간의식의 변화는 주도했던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었다면, 21세기 인간 의식의 변화는 프랙탈 이론과 유전자 연구가 주도할 것으로 세계의 석학들은 내다보고 있다.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의 윌트 박사팀에 의한 체세포 복제 양 '돌리'의 발표로 세계가 들끓은 것은 1997년 2월의 일이었다. 그 후 미국, 일본, 뉴질랜드에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체세포 복제 소 '영롱이'를 탄생시켜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05년 들어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의하여 세계는 다시 한번 떠들썩하게 되었다. 마법의 손에 의하여 실제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 치환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 실험의 성공으로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정된 공간의 지구에서 인간을 지금보다 더 향상된 고급의 질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집약된 최고급 과학능력의 산물 밖에 없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는 과학한국의 패거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유전자 연구에 대한 고급인력이 수십



불자 세상보기

김성규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황우석과 과학한국

명에 불과하며, 기발한 아이디어는 제시할 수 있어도 지속적 연구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총체적인 연구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과학한국으로 도약해야 할 이 시점에 우리는 엄청난 암초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과학정책과 맞물려 있다. 더욱이 1980년대 들어 교육의 평균화정책은 5000년 한반도 교육사에 있어서 최대의 실책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구상에 있을 수도 없는 발상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뼈아픈 인과업보를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나아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참회를 하고 있다.

고급 능력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과학이며, 과학의 발전이 앞으로 그 나라의 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고 행복해 지려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잘못된 정책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쟁 대상은 국내가 아니라 같은 나이 또래의 세계 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뛰어난 과학자 한 명이

50억의 인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런 뛰어난 과학자들은 교육 평준화 사회에서는 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능력을 능력대로 발휘할 수 있는 안 되는 쪽의 폐쇄된 교육이 아니라, 되는 쪽의 열린 교육제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이제는 20년 동안 시행한 평준화 교육에 대한 성과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본주의도 어색하며, 자본주의의 꽃인 조세제도도 어색하다. 자본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국가의 시민들에 대한 권리보장이 바탕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시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탈세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만원 낸 사람이나 일억 낸 사람을 같이 취급한다. 결국 세금 낼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대로 대우해 주는 것을 편향된 평준화와 잘못된 평등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논리가 맞는 것으로 유도해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 전제군주제에 더 익숙한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시인해야 한다. 잘못된 사고의 인식을 시인하고 고칠 수 있을 때 21세기 한국에서 과학의 꽃도 자유의 꽃도 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자비심으로 이 땅이 불국토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할!



불자의 눈

사람들의 가슴에서 연꽃이 피고 있다. 조계종은 이번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동안 자비 연꽃 배지를 보급했다. '자비 나눔 기금'으로 활용된 연꽃 배지는 무려 12만개나 배포되었다. 이 기금은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해 사용된다. 더불어 종단은 자비 연꽃 달기 캠페인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한다. 자비 나눔 사업은 한국불교계가 최초로 국내외 재난구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난구호단 기금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기에 '자비 나눔'에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

이번 자비 연꽃 이벤트는 행사의 취지가 좋았고 특히 연꽃 배지가 세련된 디자인이라는 분석이다. 내용이 훌륭하고 형식이 세련되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기 쉽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을 조화시키지 못했다. 한마디로 내용을 가중하여 담아내는 방법과 그것의 세련미가 턱없이 부족했다. 현대는 디자인의 시대이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효용이

디자인으로 핀 연꽃

라 할 때 그 사업의 성과는 디자인에서 결정된다.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디자인에 기울이는 정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디자인이 열쇠이다. 디자인은 그 시대의 숨결을 담는 그곳이다.

불교문화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이를 디자인의 세계와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야 세계무대에 불법을 흥포할 수도 있고 또 기업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우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상품'으로 경쟁력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단이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내용(불교문화)은 좋는데 가공과 그릇(디자인)이 부실하여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꽃 배지 보급사업을 통하여 불교 문화의 산업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금이 넘쳐면 복지 사업은 얼마든지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재원 마련을 위해 불교문화의 산업화가 매우 시급하다. 한마디로 디자인 감각이 절실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불교문화의 디자인 산업화, 이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때이다. 항구적이면서도 활성화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윤범모(경원대 교수·미술평론가)

'연대' 민영

심민섭



이렇게 들었다

수림장(樹林葬)
"모든 흙과 물은 모두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모두 다 나의 진실한 본체이다."
<범명경>

얼마 전 서울의 한 사찰이 유비쿼터스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골당이란 1억 원을 호가하는 납골당이지만 유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고인의 얼굴과 음성, 심지어 채취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5월 24일 영전 은해사는 시대를 거슬러 이와 정반대의 사찰 장례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찰 주변 1만여 평의 소나무 군락지를 수림장(樹林葬) 장소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수림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흙과 혼합한 후 나무 밑둥 아래에 영원히 묻는 장묘형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섭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장묘 전통이다.

고인을 그곳 은해사 소나무 숲에 묻는다... 당장 고인의 유체를 기억할만한 그 어떤 실체가 없어 잠시 쓸쓸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마음을 열어보자. 고인의 유골은 소나무의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잎이 된다. 숲속의 공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하늘이 된다. 유체를 벗은 고인, 그러나 그렇게도 기억하고 싶은 고인은 내가 사는 '지금-여기'에 언제나 함께한다.

수림장을 몇 번 찾지 않아 문득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고인이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원의 오랜 나무에 고인의 음성과 향내와 온기가 오토아 스며드는 것을. 납골당에 디지털 첨단을 수용한 새로운 시도와 함께 '연기법'에 충실한 장묘문화로 발굴한 불교계. 이를 통해 생활 속의 불교문화는 그 폭을 더욱더 넓혀가고 있다.

■강신재(해례부 기자)

특별기고

차는 냉하지 않다

혜우 스님

(혜우전통자동차 제2교육원장)



봄이 되고 새 차가 나오기 시작하자 여러 매스컴에서 차 이야기하는 것을 심심찮게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차 이야기 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차는 냉(冷)하다는 말입니다. 차의 고전인 <다경>이나 <동다송>, <꼭다양생기> 등에서 차의 성미를 두고 설명한 것을 보면 대체로 '고갈미한(苦甘微寒, 쓰고 단맛이 있으며 성질은 차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약재를 설명하는 옛 서적 중 대표적인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부분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는 냉한 성질이 있으니 속이 냉한 이들은 체질에 잘 안 맞고 수족이 냉하거나 저혈압인 사람에게는 안 맞는다고 설득력 있게 다가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차는 냉하지 않습니다. 차의 본래 성질은 냉하나 차로 만들어진 차에는 그 성질이 평(平)해 집니다. 위의 여러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의 본래 성미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시는 차로 만들어졌을 때의 성미가 아닌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려 옛 어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요즘 들어 과학적으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옛 어른들의 섭생의 지혜는 일일이

방법을 두고 말할 때마다 쓰이고 있을 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중구포는 말 그대로 시루에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찌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지황을 예를 들면 생지황의 성미는 달고 쓰며 차갑습니다. 이것을 황주를 넣고 시루에 찌서 햇볕에 말리기를 아홉 번 한 것을 숙지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생지황은 성미가 달고 약간 따뜻한 숙지황이 되는 것입니다.

효능도 생지황은 열을 내리고 피를 맑게 하며 진액을 만들어준다 했는데 숙지황은 생지황과는 달리 진액과 혈액을 보충한다 합니다. 말하자면 각각의 쓰임새가 다른 약재가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

습니다. 그런 예로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한방에서는 수지(修治)한다. 포제(炮制)한다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을 가해 약재의 성미를 변화시켜 각기 다른 용도로 처방할 약재로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전통 육육차 만드는 방법이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먼저 뜨거운 술에 생업을 넣고 찌고

이 가지고 있는 제수분으로 찌움을 익힙니다. 익힌 찌움을 명석에 비벼 식혔다

가 다시 뜨거운 술에 넣어 찌우는 수분으로 첫 번째와 같이 뜨겁게 뒤어 다시 비벼 식히기를 여러 번, 아홉수를 고집하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을 가해 찌우는 것은 바로 여러 약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통 육육차 제다법은 본래 그 약재가 가지고 있는 성미를 변화시킨 것처럼 차가 가지고 있는 찬 성질을 평(平)하게 만들기 위한 제다법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차가 가지고 있는 냉(冷)한 성질을 변화시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든 것이지요.

하루 빨리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껏 우리 차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찬 성질 제조과정에서 '平' 해져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마대사가 넘었다는 천령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 중국의 접점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쇼카 대왕이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카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향 상은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순례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정상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국-마나사르바-파양-사가-장무-키투만두-인천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실크로드와 수미산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하기척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짜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장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나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언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짜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기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영기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기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기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